

복음과 증거 (사도행전 14:1-18)

오늘은 복음과 증거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증거들을 주셨다. 증거는 응답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응답이 필요하다.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복음을 누리는 자는 평생 증거속에 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부르면 삼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 역사도 일어나고 하늘 군대도 파송되고 그렇다. 그리스도의 삼직은 성령님의 주업무이다.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 성령님의 주업무이다. 운명이 역전되고 24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답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다. 금요일예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은철목사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하게 부른다. 처음에는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앞에 멘트들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 목사님은 그 때 현장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주 의미가 있다.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다. 지난 주에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부르자고 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는구나 다시 한번 이해를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자녀를 생각했는데, 믿음이 생각이 났다. 상당한 기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는데, 요즘 회복되어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 그런데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다. 아마 복음으로 꼬셨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복음은 확실할 것이다. 내 생각에, 저런 아이의 다른 멘트와 다른 체험적인 복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자친구를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하늘에 별따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전도하기 힘쓰는 분들 많지만 왔다 가고 잘 안된다. 진짜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딱 여자친구를 복음으로 잘 꼬셨다. 이것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하루에 백번 천번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스도를 부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삼직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주가 떠나고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많은 기도제목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 하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이유가 뱀이라고 하였으니까. 뱀 때문에 문제가 왔고, 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도 오는 것이다. 그게 사단이다. 당연히 그 머리를 깨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이것 발견되면 굉장한 영안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원인이 사단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열쇠를 받았다. 이 열쇠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다 막 통하는 것이다. 만능 열쇠이다. 그리고 저절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쇠이다. 그리고 이 열쇠로 인해서 여리고 성 저절로 무너졌다. 손도 안 댔는데, 소리 지르는 것 누가 못하냐? 그리고 그 때는 시간표가 되어서 된 것이지 소리 자체로 무너진 것도 아니다.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파장에 의해서 무너졌으니 어쩌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요단강은 왜 마른 땅으로 건널수 있었겠는가? 같은 것 아닌가?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요단강에서 소리를 질렀냐? 홍해는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넜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날도 소리 질렀냐? 말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열쇠는 모든 막힌 문을 열수 있다. 조금 주의할 것은 내 문만 열면 안된다. 하나님의 문을 함께 열 것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에게는 자동인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능력도 함께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이 각인되는 역사가 있기 바란다. 각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 거기서 힘이 나와야 한다. 각인이 되어야 한다. 매일 생각할때마다 영적 힘이 나와야 한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이므로 영적 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언약잡고 예배 드리기를 바란다.

1. 복음과 증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 속에서 살게 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생각이 많다. 왜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에게 당했다. 본래는 생각한 개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창세기 3장 원죄 이후로 수만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한 개 딱 주셨다. 복음 그리스도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다. 깨달아지는 시간에 정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답으로 발견되어 지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미리라는 응답이 온다. 답 났기 때문에 무슨 일 일어나도 상관 없다. 이미 응답 받았다. 무슨 일 일어나도 이미 정복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막을수도 없고 안되어 질 수도 없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치려고 해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일어난다. 아주 기적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미 사역자들은 알겠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 때문에 속도가 더 나가는 일도 있다. 마태복음 10:4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평이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 보면 사람의 원수는 그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 하였다. 영적인 것은 한 가족이라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면 3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면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반으로 나뉘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두 사도를 따랐다. 유대인들이 자기 주위의 이방인을 유혹해서 사도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왔다. 거기서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복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온 동네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일어난 것과 같이 난리가 난 것이다. 이런 기적을 한번도 본 적이 없으니 제사장들이 나와서 소 끌고 와서 제사지내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다. 사도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말이 되지 않아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해서 못하게 하였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가 복음이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다. 응답이 필요하다. 복음이면 응답을 받는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겠지만 하나님의 증인도 되라 그런 뜻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증거 속에서 인생을 산다. 그리고 제자는 또 말할 내용도 있다. 사람이 붙여지면 제자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제자를 전도자로 양육하고 키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다. 복음을 누리면 이 두 답이 다 나온다. 복음을 안 누리고 배우려고 하면, 말도 안 나오게 된다. 3절 앞부분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담대히 말했다고 하였다. 얼마나 오래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있으면서 뭘 말했겠는가? 일단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했을 것이다. 구약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야기이다. 신약성경을 잘 이해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이야기가 구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여서 부활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은 진짜라고 말했을 것이다. 바나바는 사도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 더 체험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 잘 보라. 이것이 굉장한 답이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온 동네는 소동이 일어났다. 왜냐면 사단도 역사하니까. 그러면 내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나타나야 하는데, 내가 나에게 뭘 말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고 오늘 이야기 한 것이다. 믿는가? 그러면 하는 것이다. 빨리 안 올수도 있다. 그래도 다른 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다. 반드시 답 온다. 아주 틀림이 없다. 큰 답, 작은 답, 다섯 달란트, 두달란트는 우리 일이 아니다. 여하간 답이 온다 이 말이다. 틀림없다. 절대 낙심하거나 사단에게 내

맘을 내 주면 안된다. 분명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사단 발악해도 필요 없다. 기적의 증거를 가지고 깨버리면 된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설명해주는 일을 예사로 생각하기 쉽다. 사역자들, 특별히 그냥 하는 일로 하면 안된다. 딱 언약 잡고 가는 것과는 전쟁이 다르다. 이것을 예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다. 다르게 아니다. 이것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걸 해야 한다.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빨리 해야 된다.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큰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왜 그런가? 계속 하라고. 이것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역사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말고 평생의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인생 법칙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되는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할 생각을 한다. 이것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것이 잘 안 바뀐다. 왜냐하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것이다. 영적 문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내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에 응답이 있다. 사도 바울은 다 던져 버렸다. 평생을 거기에 올인하였다. 시대적인 기적 정도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결심을 하는 시간표가 정말로 오면 좋겠지만 결심을 해도 삼일만에 끝나버리면 안된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점진적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올인했는데, 옛날보다 더 훨씬 인생이 커져버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에 도달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어진다. 우리는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는 것이다. 능동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와주면 되는데, 안도와주고 말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로 방향을 바꿔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기도 안해도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근본 영적 문제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한다. 말씀대로가 뭐냐? 그리스도. 이것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하는 것이다. 이 예배와 기도,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지금은 좀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펜더믹 전과 비교하면 아직 아니다. 한번씩 말씀드리지만 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집에서 화면을 보고 예배드린 것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로 간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타지역에 있고,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사로 집에서 드리고 헌금 보내고. 말씀을 당해서 미국을 살리고 남미를 살려야 되는데, 이게 진짜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혹시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 이런풍조가 계속 되어 가면 그것은 교회에 굉장한 데미지가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집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면 은혜는 50% 이하일 것이다. 햇빛을 것 아닌가? 아이들 있어서 옆에 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다. 그래도 은혜는 50%이다. 틀림 없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뒤에 앉은 사람과 앞에 앉은 사람 다르다. 뒤에는 시끄럽다. 나에게서 안들린다. 뒤에 시끄럽다. 집중 해야 되는데, 안된다. 늦게 오는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다. 10분, 15분 빨리 오면 되는데 맨날 매주 늦게 오는 것은 영적문제이다. 나를 위해 고쳐야 하고 내 자녀를 위해 고쳐야 한다. 부모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아마 간단하게 결론이야기 하면 아이 다 죽이게 된다. 그래하면 안된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증인 되어야 한다. 아니, 그냥 있어도 죽고 뛰어 다녀도 죽으면 뛰어 다니는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는데, 한번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죽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아라. 이불 덮고, 화면도 안 켜도 된다. 진짜 한번 해야지, 안그런가? 코로나에 물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확 털쳐 버리고 일어나기 바란다. 이유가 진짜 있는 분은 예외이다.

그래서 이 예배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예배와 기도, 그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진짜 해야 한다. 기도도 무릎을 꿇는 것과 누워서 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몰라도 무릎을 꿇는 것과 누워서 하는 것과 영 느낌이 다르다. 이 예배와 기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불가능과 가능을 뒤집어 버린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늘 군대가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도와 예배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와 기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메시지가 아니다. 니가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니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겠다. 태어날 때부터 한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앓은뱅이도 일으키는 역사를 너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예배하고 있다. 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제자이다. 전도의 목표는 제자를 찾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고 하였다. 앞에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것,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것이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가 목표이다. 그 사람은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옥토가 제자이다. 제자가 아니면 파급효과가 안 일어난다. 제자가 아니면 구원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귀한 분들이다.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파급효과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도 제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안그런가? 이 복음이 나를 통해 파급되어 사람들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기도하기 바란다. 하나님 나도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고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 바란다. 그렇구나. 제자구나. 눈 열리는 것이다. 이것은 비유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너도 이 귀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 주실 것이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깨달으면 그 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소원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전도는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기 때문에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미 받은 응답가지고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게 어려울게 뭐가 있는가? 단지 이것을 받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느냐가 남아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 그 분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죄도 문제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이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회개해도 됩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요나의 이야기이다. 요나는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어느정도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고 기적, 증거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지만 실제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보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 진짜 증거 일어난다. 내가 안되어지는게 문제니까 기도하면 된다. 내게 만일 이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지금까지 나를 방해하는게 힘들었는데, 힘이 안들고 평안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함으로 하나님과 모든 갈등이 사라지기 바란다. 그러면 자동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 자동이다.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을 전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내 인생에,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이다. 저절로 여러고성 무너진다. 한번 해보라. 십일조를 가지고 니가 나를 시험해봐라. 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언약계를 따라서 돌아봐.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얼마든지 시험해라. 언제든지 약속대로 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증인되기 바란다. 10월 캠프도 진짜 기도하고 이번에 다른 캠프 되었으면 좋겠다.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 중심으로 하겠지만 교구장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되네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인생은 자동응답 인생이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6:33절이다. 나를 고치면 된다.